

질문 2: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이나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사보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요?

1. 세무사보 (Steuerfachangestellter)

- 세무사보는 세법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았으며 회계 및 세무 자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.
- 세무사보는 종종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**재무제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**할 수 있습니다. 세무사보는 복잡한 세무 및 회계 작업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세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**제한 사항:** 세무사보는 세무 신고서를 서명하거나 세무서에 회사를 대신해 제출할 수 없습니다. 이 경우 세무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 세무사보는 종종 세무사와 협력하여 일을 진행합니다.
- 많은 소규모 및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사보가 충분할 수 있으며, 특히 세무사가 최종 검토 및 서명을 담당하는 경우 더 적합합니다.

2. 회계사 (Bilanzbuchhalter, Buchhalter)

- **유능한 회계사**는 일상적인 회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**재무제표**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회계사는 주로 일상적인 재무 거래를 기록하고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며 기본적인 세무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맡습니다.
- **제한 사항:** 일반적으로 회계사는 세무 자문을 제공하거나 세무 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으며, 추가 자격증(예: 재무 회계사)을 소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.
- 회계사는 세무사보다 비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, 기업 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.

3. 세무사 vs 세무사보 또는 회계사

- **세무사**는 가장 광범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, 법적으로 **세무 신고서**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세무사는 또한 그들이 작성한 재무제표 및 결산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.

- **세무사보 또는 회계사**는 세무사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수행할 수 있지만, 복잡한 세무 문제나 세무서와의 소통에서는 결국 세무사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. 즉, 세무사보나 회계사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직접 서명을 해서 세무청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결론:

잘 훈련된 **세무사보**나 매우 경험 많은 **회계사**는 회계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, 특히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.

세무사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.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세무사는 우리가 세법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독일어와 한국말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용의 문제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종종 자금압박을 받은게 현실입니다.

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: "자영업자로서 정말 세무사가 필요한가?" 이 질문에 답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여기서 논의해 보겠습니다.

세무사 의무 - 법은 뭐라고 말할까요? 법적 관점에서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. 아니요, 세무사를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. 법적으로 사업자에게 세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. 세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**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.** 그래서 **세무사보나 회계사가 세무사지원없이 연말정산이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본인이 직접 싸인으로 확인해 주면 본인 책임으로 됩니다.**

세무사 의무에 관한 법률 없음

따라서 세무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. 자신의 회계 업무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 혹은 세무사보 또는 회계사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.

KORAZON